

산단 활성화·맞춤형 복지...합평군 삶의 질 높아졌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흑자 축제로 자리매김한 합평나비대축제(왼쪽)와 국향대전 행사장 전경.



<합평군 제곡>



합평군은 의료 취약지역을 직접 찾아 의료서비스를 펼치면서 농기계 수리, 무료 법률상담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동진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역민들.



합평은 특화된 지역산단 경쟁력을 확보,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동합평산단 전경(위)과 명암축산농공단지 조감도.

안병호 합평군수는 지난날 30일 국회에서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2017 지자체 행복지수평가'에서 삶의 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불리한 지역여건을 딛고 산업구조 재편과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변화와 혁신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는 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산업단지는 활성화되고=동합평산단은 준공 2년여 만에 분양률 93.6%를 기록중이다.

대다수의 산단이 분양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합평군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은 전남도 투자유치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으로 이어진 바 있다.

합평군은 735억원을 투입해 73만8000㎡ 규모로 동합평일반산단을 조성했다. 현재 74개 업체가 분양을 받았고 상당수 기업이 공장을 건축중이거나 준비해 산단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또 조성중인 명암축산농공단지 일대도 국토교통부의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면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면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국비를 지원받고 조세와 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73종의 규제 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합평군은 이 일대를 합평천지하수 등 지역의 정경·축산물을 대표상품으로 육성하는 6차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축산 생산단지, 음식특화거리, 체험 테마공원을 조성해 합평나비대축제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테마형 관광지육성하고 6차 산업 지원센터를 건립해 입주업체와 지역 농가를 지원하고 교육과 연구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334개 신규 일자리 창출, 21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등이 기대된다.

◇농·축산물 경쟁력은 확보되고=친환경



안병호 합평군수

농·축·수산업도 경쟁력이 한층 높아졌다.

우선, 합평군은 지난 2010년 이후 5회나 친환경농업평가 최우수 자치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합평의 나비쌀은 전남 10대 고품질쌀 2위에 선정됐고 합평천지하수는 12년 연속 축산물 우수브랜드에 뽑혔다. '2017년 전남도 녹색축산정책 종합평가'에서는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축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양계·오리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합평군이 특화작목으로 육성한 단호박, 무화과 등 5대 작목의 경우 재배면적이 315ha로 늘면서 132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대표 농산물로 자리매김했다.

로컬푸드직매장, 수도권 직거래장터, 축산물 이동판매 등 농산물 판로를 넓힌 점도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는데 한몫을 했다.

합평군은 민선 5기 출범이후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직거래장터 확대에 공을 들여왔다. 군은 지난 2012년 조직개편을 통해 농축산물 판촉담당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이동판매차량을 구

동합평산단 분양률 93.6% 달해 명암축산농공단지 투자선도지구

친환경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

안정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나비축제·국향대전 돈버는 축제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호응

국향대전은 7억4000만원을 투입해 8억원의 수입을 기록한, 흑자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행복하고=맞춤형 통합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령층이 많은 지역 상황을 감안한 눈높이 행정도 관심을 모은다.

이동진료차량을 운행하면서 의료 취약지역을 직접 찾아 의료서비스를 펼치고 이·미용, 농기계 수리, 무료 법률상담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합평만의 독특한 시책이다.

이동진료차량엔 일반, 한방, 물리치료, 치과 등 11명의 의료인력이 팀을 구성해 주 4회 각 마을을 돌며 주민들을 진료한다. 올해만 146회를 운영해 8640명을 진료하고 563건의 온누리 나눔서비스를 제공했다.

합평천지종합복지관, 신광노인복지센터 등 거점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마을공동체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지난 2010년 308곳(7억3400만원)을 지원하던 데서 올해는 375곳(30억원)으로 늘었다.

정주여건도 개선됐다. 상수도는 2010년 41%에서 올해 90%로, 하수도는 37%에서 74%로 보급률을 2배 이상 끌어올렸다.

도시가스는 현재 합평읍과 학교면 1560세대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동면에 LH 행복마을 임대주택(150세대)이 계획대로 건립이 한창이다.

◇행정은 군민 중심으로 투명하게=합평군은 지난해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군 단위 자치단체 중 전남도 내 1위에 올랐다. 전남도가 실시한 시·군 부패방지대책 경료당에 대한 지원도 2016년 2년 연속 종합 1위를 기록했다.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됐다.

/합평=황은학기자 hwang@kwangju.co.kr

대원여행사와 함께 겨울전세열차

문의 및 접수 (062) 526-7000

- 해외여행 · 국내여행
- 할인항공권 · KTX기차표
- 허니문 · 단체여행
- 골프투어 · 기차여행

www.daewontour.com

코스	코스명	성인·경로	어린이
코스1	울산 간절곶 새해 일출열차	99,000원	79,000원
코스2	정동진일출·월경사 열차	120,000원	90,000원
코스3	태백산 눈꽃 축제·하이원스키장 열차	120,000원	90,000원
코스4	정동진 일출·하이원스키장 열차	120,000원	90,000원

(주)대원여행사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76 지승빌딩 1층(현대자동차빌딩 옆)

후원 | KORAIL 광주본부 울산광역시